

‘금강엘에프의 기초’ 봉암 농장

대전충남지원 과장 김희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성 향상의 기초는 잘 키워진 병아리들 일 것이다. 육추사가 따로 있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유)금강엘에프(충남 논산시 소재)는 자체 육추 농장에서 병아리를 육성하고 중추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금강엘에프의 미래인 봉암농장을 소개 하고자 한다.

봉암농장 현황

대전 조치원간 도로변에 위치한 봉암농장은 2001년도에 중추사의 건립으로 자체 육추사를 가진 농장으로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다. 2004년도에는 한 개의 동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이 계사를 개축하고 지금의 7만수 2개동으로 병아리들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금강엘에프 중추 사양관리 현황

(2010. 9월 현재)

계 사	품종	주령	사육두수	이동 예정시기
1동	하이라인	10	70,000	2010. 10. 15
2동	하이라인	9	70,000	2010. 10. 15

방역에 최선을 다하다

성계사와 중추사가 한 곳에 있으면 외부인의 출입이 많고 그 만큼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다. 관계자들의 출입은 당연하지만 성계를 위한 방역 및 백신접종 그리고 사료의 급이를 위한 농장의 방문에 중추사는 그대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리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따로 중추사를 두면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 하고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과 병아리 육성만을 위한 관계자의 방문만으로 출입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 단점은 성계사가 멀리 떨어져있어 이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병아리를 육성 하면서 기본 백신의 접종과 오랜 기간 양계사업의 노하우를 살린 점등관리와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농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주위환경과 계사주변의 수목들이 어느 농장보다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 정돈 되어 있었고 계사 내부도 환기와 습도의 적절함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타 농장에도 판매를 겸하고 있어 병아리의 육성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으며 동물복지와 친환경적인 경영으로 안전한 계란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란계 농장으로 불리워 지길 바란다.

